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23 관세음보살의 도상학



▶한줄 요약
중생의 모든 악업을 유발시키는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이것을 불식시키는 신성한 힘이 '자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 에너지의 화신이 우리가 익히 아는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 자비로 중생 굽어보시니…

모든 '부정적 감정'의 이면에는 '공포'가 있다.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들뜬 마음, 후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 사견의 마음 등,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不善業 또는 不淨業)이면에는 공포 또는 두려움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존재적 공포와 두려움

내가 존재하지 못할까하는, 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존재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재를 살면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부정적 감정의 단골 대상이나 단골 사건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의 번뇌인가? 무슨 복잡다단한 인연이 있는 걸까? 운명의 장난일까? 난해한 심리의 근본을 파헤쳐야 하나?

아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현재의 느낌(수 · 受)이다. 범인(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다시 정리하면, '①부정적인 감정 또는 생각 ← ②존재에 대한 공포(또는 두려움) ← ③불편한 느낌(불선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요소는 '← 역 화살표'로 표시했다)'의 순서이다. 촉(觸: 나와 세상이 만날 때, 즉 육근과 육경이 만날 때)은 수(受: 느낌)를 유발시킨다. 우선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말했으나,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보자.

느낌은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발달돼 있다. 촉이 일어나는 즉시, 순식간에 '좋다 · 싫다 · 중간이다'의 셋 중 하나로 반응한다. 우리는 특히 부정적인 또는 불편한 느낌에 예민하다. 이는 생존본능(생존에 대한 집착)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기가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자지러지게 우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

특정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얼른 내 몸의 느낌을 체크해 보자.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 드는 곳이 없는가. 답답한 가슴의 느낌은 없는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긴장이 엄습한 것은 아닌가. 불편한 느낌이 오는 순간에 긴장이 유발되고, 이는 섬광의 속도로 내 기억 창고(상온 · 想薀: 기억과 인식의 저장고)에서 이러한 유사한 긴장을 유발했던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린다. 몸이 마음을 동원해 경계경보를 켜는 것이다.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은 수, '느낌 그 자체로만 관찰'하면, 거기에 갈애(집착)이 들러붙지 않는다. 이것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업의 연결 고리는 끊긴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사념처(四念處) 수행이다. 사념처(①신身, ②수受, ③심心, ④법法)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①몸 관찰(신념처)와 ②느낌 관찰(수념처)'이 지금 이순간의 무상 · 고 · 무아를 보는 수행의 시작이자 번뇌를 막는 첫걸음이다. 나를 정화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면 애꿎은 상념의 대상(허상)에 탐 · 진 · 치로 반응해 혼탁한 부정업을 계속 키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은 수, 느낌 그 자체로만 관찰하면 오온의 전개를 일어나지 않는다. 통찰지가 작동하는 시점에서 끊어진다. 오는 느낌을 '느낌 그대로만의 생멸(일어남과 사라짐, 무상함)'을 관(觀)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3차원의 공간에 노출돼 사는 한, 느낌을 초래하는 촉의 유발을 막을 수는 없겠다. '촉은 바로 느낌으로 이어지고, 불편한 느낌은 몸에 경계경보를 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정적인 번뇌로 직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각 단계(촉→수→반응→주의쏠림과 잘못된 인식의 일어남→공포(상想)→부정적 번뇌(行)마다 들러붙는 것이 '갈애(또는 집착)'이다. 이러한 집착의 에너지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集聖諦)'인데, 일련의 과정마다 다음 단계를 유발시키는 액셀(가속 장치) 역할을 한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양한 부정적 마음들을 가지고 와 우리는 무지, 갈애로 전전하며 윤회
관음보살, '광명의 그물'로 중생구제

마음은 강한 파장의 기억으로 '자재'

마음은 스스로 끊임없이 존재하려고 번뇌를 일으킨다. 파장이 강렬한 번뇌일수록 좋다. 즉, 가장 고통스럽거나 충격적인 번뇌일수록 마음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은, 그로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건 힘들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 계속 존재하면 그만이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떠올려 나를 정신없이 휘두른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오욕자재(五欲自在)'라고 한다. 중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욕망(성욕 · 식욕 · 수면욕 · 재물욕 · 명예욕)이 '자재', 즉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컨트롤 불가능하다. 이러한 오욕의 이면에는 '생존욕'이라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욕망이 존재한다. 생존욕은 무명을 바탕으로 나온다. 무명이란, 현상(무상 · 고 · 무아)를 보지 못하는 '자각(깨달음)의 빛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치癡)을 말한다.

〈붓다차리타〉에는 오욕자재왕(五欲自在王)이 오욕의 화살(五箭)을 쏘아, "마치 바람처럼 조금이라도 스치가만 해도 마음은 미친증세를 낸다(小觸如風吹 其心發狂亂)"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감각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오온(五蘊, 색 · 수 · 상 · 행 · 식)의 반응은 섬광처럼 전개일로이다

그러니 미워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활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원리를 간파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하는 몸과 마음에 나는 하릴없이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자재하는 몸과 마음의 활동에 계속 놀아날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것인가. 그 방법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구구절절 설해 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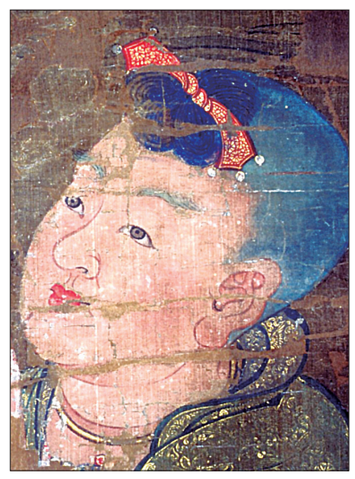


그림① 1310년 조성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관세음보살의 얼굴 부분.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된 문화유산으로 현재 큐슈국립박물관 기탁 보관돼 있다.

"모든 사람들은 무지와 애욕 때문에 미혹의 세계를 윤회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해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 대해 조금의 싫증도 내는 일 없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실제로는 자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이리해 그들은 탐심 · 노여움 ·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꽃을 태우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상태이므로 그들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 오직 맹목적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따름이다."

중생의 모든 부정업(또는 불선업, 악업)을 유발시키는 '자기 존재(유존 · 有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이것을 불식시키는 신성한 힘이 '자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 에너지의 화신이 우리가 익히 아는 '관세음보살'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대목을 보도록 하자.

'보살'이란 무엇인지 또 보살이 상징하는 '자비'란 무엇인지를 묻는 선재동자에게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답한다. 안쓰러운 눈으로 아기 같은 선재를 굽어보며(그림①, ②) "나는 대비법문광명(大悲法門光明)의 행(行)을 성취했다. 그 대상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나, 큰 광명의 그물(光網)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 "모든 중생을 포용해, 그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뜨거운 번뇌의 공포 △어리석음의 공포 △결박의 공포 △살해의 공포 △가난함의 공포 △살지못할까 하는 공포 △소송의 공포 △대중의 공포 △죽음의 공포 △사악한 길의 공포 △모든 행로의 공포 △뜻이 같지 않은 공포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공포 △일체 악의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한다.〈끝〉



그림② 선재동자의 얼굴, 그림①의 부분.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자비 에너지로 녹아나는 공포

앞서 "이러한 이유(내 존재를 유존하고자 하는 불안과 두려움)로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언급했다. 모든 생명의 이러한 공통적 속성을 간파하고 이를 구제하는 분(신성성)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모든 사람들은 무지(내가 있다는 착각, 근본무명)와 갈애(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로 세상을 전전하며 윤회하고 있었다. 화엄학의 대가로 꼽히는 일본 학자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의 말을 빌려보자.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